

비전있는 건설리더

제7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최우수에세이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김 나 래

2010년 7월.. 4학년 1학기를 끝내고 해야할 것들은 많은데 나는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고, 2학기가 되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매일 과제에 시험에 스트레스 받을 것, 졸업하면 취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것.. 나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시점이 너무 부담스럽고 재미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 서울에 오기 전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정상까지 9시간 걸린다는 것도 알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나의 인내심테스트를 위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약간의 내리막길이 있었을 때는 편했지만 내려온 만큼 2배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사실 내려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것이란 계획을 세우면서 올라가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순간을 생각해보니 여기 서울에서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서울 가서 교육받을 때, 나한테 투자한 돈,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게만 하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 교육에 임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CM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렸던 걸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제 현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설계, 구조, 설비 등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을 기본 전제로 알고 있어야 이 교육에서 더 깊고 넓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후 한미파슨스 김종훈 회장님께서 과제로 3년 뒤, 5년 뒤의 나의

비전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루 만에 똑딱 작성할 수 없는 숙제였고, 며칠 동안 5평도 안되는 좁은 고시텔에서 60살이 되는 날까지의 나의 비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경험들을 할 것이라는 계획과 현실성이 희박하지만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꿈꾸고 있는 목표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차세대 건설리더가 되기 위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내가 모르는 건설에서의 넓은 정보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사님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중요한 것을 필기 했습니다. 건설관리에 관한 내용들, 설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그리고 건축 전공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타당성분석, 경영, Cost Plan, 법규와 제도 등 건설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파악하는 수업은 더 흥미로웠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은 건축인으로서의 한계, 내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의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한계를 느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수업은 금융에 대한 것과 원가관리였는데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적용하기 전 사업에 대한 분석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중에 강사님들의 수업 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을 다녀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청 공사현장에 다녀왔는데 지상에는 철근들만 쌓여있는 조용한 현장이 지하로 내려가니 사진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Top Down 방식으로 지하 2층까지 포크레인이 굴토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하 1층의 슬래브를 깔고 지상 1층 아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본 가장 큰 스케일의 공사 모습이어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내가 담당해서 하는 거라면 책임의식이 대단해야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중간, 기말 시험을 다 끝내고 마지막 OJT기간에는 CENTER1 이라는 을지로에 있는 공사비 2,800억원, 사업적 가치로서 1조 5,000억원 정도이고 높이 148m가 되는 오피스 건물에 나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마감공사를 보고 커튼월을 어떻게 부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보았습니다. 이 외에 힘들었던 점은 현재 공사현장에서의 미약한 부분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는데, 호이스트의 적절한 설계, 노무자들이 일할 때의 환경 조건도 건설인의 숙제였습니다. 호이스트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회의실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하고, 노무자들의 화장실 설치도 미리 생각해주시지 않았으면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참을 수 없는 약취도 느껴야 했습니다.

8월 2일.. 처음에 왔을 때의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제 열정과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열정은 누구나가 갖고 있고 나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내가 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과 오기 전에 엄청 많았던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은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PM, CM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꿈과 비전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꿈을 비전으로 바꾸어서 다시 내 목표도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갔을 땐 건설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므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경쟁력 있고 책임의식이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고등학교 수업처럼 엉덩이가 커질 것 같이 힘들었지만 소중한 사람들 많이 만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